

“균형있는 행복도시 실현”

강임준 군산시장 시정연설... 2021년 예산편성·시정운영 방향 등 발표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강임준 시장은 “을 한해 코로나19 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힘겨운 시기를 지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등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활력으로 시민 모두의 균형있는 행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6일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1년 예산편성 및 시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전문성을 강화한 방역안전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미세먼지 저감사업, 화학물질 사고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시정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비롯한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생태계 변화를 통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

조했다.

화하여 골목상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9월 정식 출범한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재도약해 나가고,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

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특례보증 및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요구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걸맞은 관광 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분야에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해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해역 특성에 맞는 양식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수산물 유통기공시설 확충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시는 이를 위해 2020년 대비 8.1% 1,056억원이 증가한 1조4,128억 원 규모의 본예산편성 본회의에 제출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고액 체납자 조합 출자금 압류

군산시는 체납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조합에 대한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를 벌여 고액체납자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제2금융권 조합은 이러한 시스템

이 없어 이번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출자금을 찾아냈다.

시는 지난 9월~10월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군산농협, 동군산농협, 군산원예농협, 군산시수협, 군산산림조합 등 5곳에 대한 출자금 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35명(체납액 1억700만원)의 출자금 1억1,400만원을 압류

했다. 이에 이들의 출자금 전액을 출금 정지하고, 자기 납부 목려하여 4,000만원을 징수했다. 기한 내 미납자는 순차적으로 조합들과 상의해 출자금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 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허용된 지방세법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신고 포상제 강화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난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

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

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85-811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한명란 익산시 보건소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올인

익산시, 선별진료소 추가·전담 공무원배치·신속한 검사 등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가격리 중 확진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담 공무원 배치와 수시 현장 점검 횟수를 늘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명란 보건소장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25일 5명이 이어 이날 오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71명으로 늘었다.

68번(전북 276번)과 69번(전북 277번) 확진자는 금마 제757세대 소속 군인으로 이들은 최근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코리아 2020’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참석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전 확진된 70번(전북 278번)과 71번(279번)은 원광대병원 관련 대학로 음식점을 통해 감염된 사례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해 보다 강력한 확산 차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추가 확진자를 대상으로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짧은중 확진자를 신속하게 관별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원광대 문화체육관에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5일 운영 결과 99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앞서 시는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모두 중단하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2곳, 익산종합운동장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1곳을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군부대도 전체 소속 인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2020년 아동학대 예방의날을 기념해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민숙)이 26일 오후 3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 및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학대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아동복지법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법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경기도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변화된 아동보호체계 안내 및 제언’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 이어 당북초등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실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구성된 지역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제언을 발표 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26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결산추경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조 4,845억원 규모)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조례안 18건 중 의원발의의 조례안은 6건으로 ▲익산시 전통무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 의원)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호 의원) ▲익산시 재향영우회 지원 조례안(박종대, 최종오 의원) ▲익산시 병역명목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익산시 건축조세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 의원)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행감 마무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5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1년도 예산안 및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시장 업무 전반에 대해 어느 해보다 세밀하고 심도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사무관리를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316건을 지적했고 이 가운데 시정조치 123건, 대책마련 172건, 향후조치 13건, 기타 8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 청소년 노인인권 조례안 등 25건 중 원안가결 22건, 수정가결 3건을 의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올해 예산보다 1,056억 원 8.1%가 증액된 1조 4,128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202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산=한영봉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